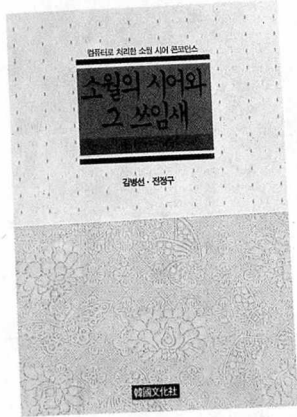


컴퓨터 이용한 현대시 색인의 한 전범

김병선·전정구 펴냄 「소월의 시어와 그 쓰임새」



김소월의 시에서 '책'이란 말은 몇번 나올까. 이성의 표피를 찢고나온 감각의 깊이만을 보여준 시인의 시답게도 단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여자'란 말은 '女子'라는 표기로 10번, '女'란 표기로 1번, 도합 11번 출현한다. '女'란 시어는 전정구교수 엮음 「소월 김정식 전집」의 제2권 134면에 수록된 시 「봄바람」에서 "귀 밧과, 불늑한 젓가슴, /모단 女, 모단 아희, 世相의 尖端을 짓는"이란 용례속에 나온다.

「소월의 시어와 그 쓰임새」(전3권)는 '어절' 단위의 김소월 시어 '용례 색인 : 콘코던스 (concordance)'으로서 일반독자의 위와같은 천박한 호기심과 연구자들의 문체론적 연구분야에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현대시 색인에 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제3권 권말에 수록된 엮음이 김병선교수(전북대

국문과)의 논문 「어문연구와 컴퓨터-변명과 전망」은 컴퓨터를 이용한 색인작업의 원리와 처리방법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기도 하다.

용례색인은 한 색인 단위(키워드)가 어떤 문헌에서 사용된 예를 그 앞뒤 문맥(context)과 더불어 제시해 놓은 것을 말한다. 서구에서는 애초에 「성서」의 용례색인으로부터 출발해 셰익스피어 등 중요문인의 작품에까지 적용되어 문학연구의 주요한 기틀을 제공하기도 했다. 저명작가의 작품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용례색인은 이상섭교수의 「님의 침묵」의 어휘와 그 활용」(탐구당, 1984)이다. "자녀들까지 동원하여 삼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고백이다. 셰익스피어의 콘코던스는 19세기에 한 학자의 십수년을 잡아먹었다. 「성서」의 그것에는 수백명의 신앙인들이 순교하는 기본으로 매달렸음직하다. "그나마 빠진 부분, 틀린 부분이 적지 않다."

컴퓨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용례색인 집은 윤주은교수의 「김소월 시의 어휘와 그 활용구조」(학문사, 1991). 그러나 「원전확정에 문제가 있고, 색인 자체가 본격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이후 김병선교수는 「국어와 컴퓨터」(한실, 1992)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국어문헌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고, 불 만한 용어색인으로는 김홍규교수의 「松江 詩의 言語」(고려대 출판부, 1993)가 있다. 김병선·전정구교수가 엮은 이 책은 '타성출판(DTP)물'이기도 하다. CD-ROM 아닌 종이책 형태로 출간됐다. 한국문화사/A5신/각 588, 560, 340면/각 14000, 13000, 8000원

동화의 세계로 가는 환상과 모험

고려원미디어 펴냄 「페이지 마스터」



책으로 만들어진 산, 책으로 만들어진 바위, 책을 먹는 용...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페이지 마스터'는 이런 일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책속에 들어가 환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준다. '페이지 마스터'는 데이비드 컬슨과 어니 콘트레사가 쓰고 제리 티리틸리가 그림을 그린 책에 등장하는, 책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 신이 겁쟁이 소년 리처드를 모험의 세계로 이끄는 동화책 '페이지 마스터'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에는 「해저 2만리」 「지킬박사와 하이드」 「프랑켄슈타인」 「모비 딕」 「보물섬」 「걸리버 여행기」 「아라비안나이트」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책과 콩나물」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험과 환상, 공포 장르의 아동문학 고전들이 두루 펼쳐진다. 즉 '책의 내용'이 이

동화의 배경이면서 등장인물들인 셈인데, 어린이들에게 심심찮게 던져주는 "책을 읽어라"라는 백마디 말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독서교육용으로도 읽힐 만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이지만 요즘 어린이들의 독서풍조를 비판하는 대화도 들어있다. 조언급으로 등장하는 「모험」의 씩씩선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이 도서관에 닦을 내린 지가 너무 오래 되었어.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라구. 나는 맑은 바닷바람을 쐬고 싶어. 내 책장 가득 산들바람을 느끼고 싶단 말이야."

뇌진탕이 무서워 꼬마야구단을 그만둔 우리의 주인공 리처드는 어느날 폭풍우를 만나 도서관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만난 '페이지 마스터'에 의해 리처드는 동화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두 조언 이외에 「공포」의 오싹아저씨 등과 함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실제로 만나는 여행을 한다. 이 여행을 통해 리처드는 진정한 용기와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리처드가 여행을 떠나기 전 '페이지 마스터'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 책을 펼쳐 보는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이 말은 리처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독서지침'.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만큼 재미있다. 빠른 이야기 흐름과 화려하게 책장을 가득 채우는 그림은 시청각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의 기호에도 잘 맞는다. 「나홀로 집에」에서 백만불짜리 비명소리로 유명한 매ल्ली 컬킨을 주연으로 영화계 작중이라 한다.

고려원미디어/A4변형/96면/7000원

무용이론입문

존 마틴 지음 / 김태원 · 장정윤 옮김
값 8,000원

춤에 대한 깊은 사고와 논의를 제공해주는 이 시대의 가장 아카데미한 무용 평론가였던 저자의 이론적 입문서. 독특한 용어와 표현법을 구사하여 춤의 본질적 특성과 그 예술적 양식에 접근한다.

춤의 언어

마리 뷔그만 지음 / 윤계정 옮김
값 10,000원

독일 표현주의 무용의 선구자인 뷔그만의 무용이론과 예술철학, 작품세계 등이 소개된 자전적 논설집. 특히 후반부에 첨부한 아르투르 미헬의 원고는 '독일무용'의 역사와 뷔그만의 무용세계에 대한 이론을 명쾌하게 서술한다.

예술학

와타나베 마모루 지음 / 이병용 옮김
값 8,000원

'美學'으로 알려져 있는 예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광의의 '예술창조'를 둘러싼 모든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 저자의 특유한 예술학적 서술법으로 개성적이고 명증한 논리의 전개가 돋보인다.

잔혹연극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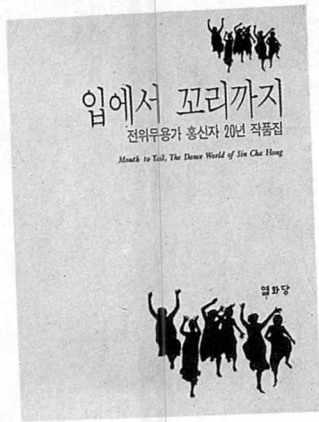
앙토넬 아르토 지음 / 박형섭 옮김
값 6,500원

20세기 서구 현대연극에 심대한 영향을 준 脫言語的 연극론. 동양의 원초적 연극자산을 토대로 한 새로운 연극적 개념을 제시하여 특히 포스트모던 연극 문화론의 한 기점이 되고 있다.

예술비평·이론
교육서 전문출판
현대미술사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7번지 대표전화 766-3527

한 전위무용가의 공연작품 사진집

홍신자 펴냄 「입에서 꼬리까지」



결산하는 작품집을 펴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공연했던 작품을 표제로 삼은 「입에서 꼬리까지」가 그것으로 작품공연 사진집이다. 그녀가 세계각지에서 벌였던 춤판의 현장을 찍은 윌리엄 고델 등 국제적 사진작가들의 작품 80여점을 모은 것이다. 책에 수록된 일체의 글들은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돼 있다. “그녀의 국제적 지명도와 수용을 고려했다”는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춤이 “지고한 정신적 차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준 그녀의 ‘몸=마음=춤’이 곧 작품일진대, 그걸 담아낸 한컷 한컷의 사진이 작품이거니와 열화당의 책 만드는 솜씨도 작품이어서 이 책의 품위는 불문가지다.

일전에 ‘신인간시대’란 TV 다큐멘타리는 그녀의 삶을 다루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럴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란 자막이 떠오르며 끝났다. 비평가 김채현씨(중앙대 교수)가 작성한 「홍신자 연보」에 의하면 홍씨는 ‘언제나 항해중’인 배와 닮았다. 26살의 나이에 춤에 입문한 것이 첫 출항이라 할 만하다. 이후 8년간 운동선수를 방불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수련과정을 겪는다. 첫작품 「제례」를 본 스승 호더스(뉴욕대 학장)는 ‘下山하라’고 조언한다. 라즈니쉬를 만난 그녀는 “춤은 명상적 깨달음의 일환”이란 깨달음을 얻고 僑港한다. 이윽고 “라즈니쉬에게는 라즈니쉬의 길이,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는 각성을 얻고 재출항한다.

이후의 작품들은 “이백년 후에 보고 싶은 작품” “이 지구상에서 이런 독특한 춤을 추는 자는 너밖에 없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열화당/B4면형/132면/20000원

발레는 地面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한다. 발레리나는 항상 도약하거나 부유하고자 한다. 그의 엄지발가락은 接地面적의 無化를 꿈꾼다. 전위와 구도의 무용가 홍신자씨(54)의 춤은 그러나 大地속으로 스며드는 습기이자, 땅을 뒹구는 돌이런 평가를 받는다. 습기일 땀 침묵이고 돌일 땀 속삭이다. 에두르자면 「뉴욕타임즈」 춤 비평가 제니퍼의 말마따나 “침묵 속에서도 구변 좋게 속삭인다.” 즉 떠들지 않는데도 크게 들린다는 해석이다. 홍씨의 춤 세계의 대립항으로 서양무용 전체를 짝지우는 일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도 한 모양이다. 우장평(중국 예술아카데미 외국무용 연구부장)은 「세계무용사를 만든 인물들」에서 이사도라 덩컨, 마사 그레이엄 등 18명의 현대무용가를 다루고 있는데, 동양인 으로서는 홍신자만 꼽았다.

그런 홍씨가 춤 인생 20년의 ‘항해’를 중간

국민학생 위한 학년별 글쓰기 지침서

「어린이 글짓기를 위한 주제별 예화집」 전6권



요즘 ‘덩달이 시리즈’가 대유행이다. 특정 단어를 집어넣은 짧은 글짓기 시리즈이다. 남한에서는 소재가 고갈됐는지 ‘북한의 덩달이’ 시리즈도 나온다. 일테면 우주의 한 성운인 ‘안드로메다’. 북한의 한 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자, 덩달이는 “우리집엔 전기불이 안드로메다(안들어옴메다)”라고 작문했다.

최근 출간된 「어린이 글짓기를 위한 주제별 예화집」(전6권)은 겸손, 책임, 정직, 노력, 희망 등 추상적 개념을 수많은 예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똑똑 박히게 하는 예화 집이다. 특정 단어 개념을 넣은 글짓기 예문집이 아니라,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 추상어의 속뜻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료집이다. 또한 각 예화는 국민학교 각 학년의 ‘바른생활’이나 ‘도덕’ 과목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예절과 규범을 주제로 삼고 있어 일종의 혼화집이기도 하다.

따라서 “①주제별로 엮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고 난 후에 주제를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②다양한 주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문을 할 때 쓰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지은이 김병렬씨(서울사대 부속 국민학교 교장)는 책머리에 적어놓았다.

국민학교 각 학년용 책이름은 다음과 같다. 「살아난 아기양」 「왕이 된 가시나무」 「사냥꾼과 사고새」 「쇠줄것공이로 바늘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보 클럽」이 그들이다.

각권은 각 학년 ‘도덕’의 지도목표와 지도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지도내용은 개인, 가정·이웃·학교, 사회, 국가·민족 생활로 4분류된다. 6학년 ‘도덕’의 지도내용 중 개인생활 부분은 ㉠적성에 알맞은 일과 앞날에 대한 설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옳은 신념과 꾸준한 실천에 중점을 둔다. 이어서 그 주제들에 합당한 예화들이 4,50편 소개된다.

6학년용 「바보 클럽」에서는 ‘독서’라는 말 뜻의 이해를 위해 안중근 의사의 예화를 든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사형집행일이 가까워지자 안의사는 「동양평화론」의 탈고를 위해 15일만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일본인들은 이미 독서로 연마된 안의사의 인격에 감화받았던지라 전례 없는 집행 연기를 해준다는 줄거리이다. 마지막 구절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셋터/A5신/각 250면/각 5000원

「출판정보」의 재고가 늘 딸리는 이유는?

그 이유는..

(1) 검색하라, 자르라, 불이라 아침시간을 다 잡아먹던 신문스크랩을 단숨에 해결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출판사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신문스크랩이란 놈, 귀중한 아침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가죠? 「출판정보」에게 스크랩을 맡기십시오. 「출판정보」는 출판계 동향, 신간정보, 화제작가, 유통업계 동정 등 10개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검색하는 출판전문매체입니다.

(2)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출판정보」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보여드립니다. 「출판정보」는 제일기획, 오리콤, 엘지애드 등 광고기획사의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갤럽을 비롯한 리서치 전문 기관과도 선을 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고, 출판광고의 매출추이,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여론동향 그리고 독서실태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출판정보」 하나로 10개의 정보원을 통합하십시오.

(3) 「출판정보」는 외국의 출판계 동향과 신간정보를 제공합니다. 「출판정보」는 각국의 출판계 흐름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 출판문화의 경향과 풍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나면 해외저작물을 우리 정서와 감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서죠. 「출판정보」에는 해외 분야별 신간, 그리고 유통방식과 출판동향, 베스트셀러의 뒷얘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출판사라면, 대부분 「출판정보」를 선택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발간형식: 주2회 2권(매주화, 금) ◆판형 및 분량: 4*6배판, 매권 110여쪽 ◆회비: 3개월 10만원, 6개월 18만원, 1년 30만원 ◆연락처: 전화 271-0494/5 팩스 277-7301 ◆담당자: 최은선(편집기획팀) ◆발송방법: 택배 및 우편발송 ◆직접 책을 보고싶으시면 연락하십시오. 샘플북을 보내드립니다. ◆5월과 6월에 가입하시면 사외보주소록 DB를 보내드립니다.

주2회 2권
출판정보
출판정보